

葛峯 金得研의 學問과 思想

金 鍾 錫(慶北大)

• 目 次 •

- | | |
|-------------------|------------------------|
| 1. 생애와 시대적 배경 | 1) 詩에 나타난 葛峯의 求道精神 |
| 2. 葛峯의 學問淵源 | 2) 義兵活動에 나타난 葛峯의 實踐精神 |
| 3. 葛峯의 交遊關係와 學問形成 | 3) 葛峯의 精神的 定着 - 「止水亭記」 |
| 4. 葛峯의 思想的 諸樣相 | 5. 결론 |

1. 생애와 시대적 배경

金得研은 호가 葛峯이고 자는 汝精으로 1555년(명종10)에 惟一齋 金彦璣(1520-1588)와 英陽 南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葛峯은 태어나 채 돌이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를 여의고, 그후 그는 조모의 손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이복 동생인 得礪·得礪를 비롯하여 3남5녀 가운데 長子로서, 어려서부터 退溪 李滉(1501-1570)의 及門弟子이면서 出仕를 단념하고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있던 아버지 惟一齋로부터 家學을 계승하였다. 한편 25세가 되던 1579년에 月川 趙穆(1524-1606)을 모시고 陶山書院과 淸涼山을 유람하면서 遊錄을 비롯하여 수십 편의 詩를 남겼으며, 그외 西厓 柳成龍(1542-1607), 栢潭 具鳳齡(1526-1586), 寒岡 鄭述(1543-1620) 등에게 遊門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서 30代 후반까지는 여러 문하를 출입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8세가 되던 임진년(1592)에 왜란이 일어났고, 葛峯은 여러 士友들과 함께 擧義에 참여하였다. 그는 家財를 내어 義倉을 설치하여 군대를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는 한편, 명나라 군대의 종사관들을 접견하는 일을 맡았다. 비록 전투에 참여하여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은 없으나, "경상도 6진이 모두 잔파하였지만,

安東이 무사하였던 것은 金得研의 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활약을 하였다. 특히 이때 援軍으로 참여했던 明나라의 종사관들은 葛峯의 忠義 뿐만 아니라 그의 文章에 크게 감동하여 이를 찬양하는 시와 글을 남겼다.

葛峯은 일찍부터 文學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으나 과거시험에 뜻을 두지 않다가 나이 58세(광해4)가 되어 비로소 생원·진사 양시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복인정권 시대로 葛峯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후로 벼슬에의 희망을 끊었다. 그는 선친의 묘소 아래에 止水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한편으로 후학을 가르치고 한편으로 원근의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순수한 處士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葛峯은 「止水亭歌」를 비롯하여 내용과 분량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가사와 시조 작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의 문학 작품은 대개 이 止水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병자년(1636)의 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비분과 강개를 시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인 1637년(인조15)에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났다. 葛峯은 스스로의 공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널리 알려지지 않다가, 그로부터 2백여 년이 지난 후 安東의 유림들이 연명으로 조정에 상소하여 贈職과 贈諡를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1858년(철종9)에 조정에서는 司憲府 執義를 추증하였다.

2. 葛峯의 學問淵源

葛峯의 학문적 배경을 말하자면, 일차적으로 아버지인 惟一齋를 통한 家學의 계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葛峯은 惟一齋가 36세가 되던 해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33년 동안 장남으로서 봉양하면서 학문을 배웠을 뿐 아니라, 또한 葛峯이 交遊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南致利, 權曄, 申之悌, 權泰一, 金圻, 琴撥 등 葛峯과 가까운 주변 인물들은 공히 惟一齋의 문인들이기 때문이다. 葛峯의 「행장」에는 그의 학문연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공은 아버지에게 배우는 틈틈이 (동문들과) 더불어 文章을 가다듬고 經傳을 공부하였는데, 立志가 굳고 工夫가 독실하였으므로, 약관이 되기 전에 이미 영특하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동문들 간에도 웃길을 여미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¹⁾

위의 자료를 상고할 때, 우리는 葛峯의 학문 형성에 있어서 家學의 계승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家學은 惟一齋 당대에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쌓아온 학문적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退村의 문장과 潭庵의 학술은 후세에 빛을 발하기에 족하였으며, 특히 潭庵의 선견지명은 명철함 가운데서도 으뜸이었다. 자손들이 번창하여 가정의 교육을 받았는데, 文章과 行實로 세상에 이름을 날린 경우가 많았다. 선생(惟一齋)께서는 타고난 바탕이 뛰어나게 총명한데다가 가정교육을 받아 아름다움을 이어나갔다.……2)

退村(閔)은 惟一齋에게 5代祖가 되는데, 특히 문장으로 일찍이 이름이 있었으며 『氷玉亂藁』라는 不傳의 詩集이 있었다.³⁾ 潭庵(用石)은 惟一齋의 조부로서 估畢齋 金宗直의 문하에 遊學하였으며 學行으로 이름이 있었으나 연산군의 실정을 목격하고 妻鄉인 安東 九潭에 卜居하였다. 그는 사태를 판단하는 知幾의 안목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估畢齋와 그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들이 무오·갑자·기묘사화를 거치면서 대거 화를 입었으나, 潭庵은 일찍 이를 예견하고 은둔함으로써 여생을 보존할 수 있었음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⁴⁾ 이로써 볼 때, 문학 내지 문장에 대한 재능은 惟一齋 집안의 傳家の 학풍이었다고

1) 公詩禮之暇, 相與刮磨爲文章, 講究經業, 立志堅苦, 工夫篤至, 未弱冠已有雋聲, 同門之士無不斂衽推服. (『葛峯先生文集』, 卷4, 「行狀」) 본 논문에서는 1982년 昨晟社에서 영인한 『葛峯先生文集』을 기본자료로 하고, 葛峯家の 世稿인 『龍山世稿』를 참고하였다.

2) 退村之文章·潭庵之學術, 足以垂光燾後, 而潭庵之炳幾爲明哲之首, 子孫蕃昌, 濡染庭訓, 多以文行名世. 先生資稟超詣, 襲訓趾美……. (『惟一齋先生逸稿』, 卷2, 「行狀」)

3)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1994年刊), 卷1, 「氷玉亂藁序」.

4) 上同, 「潭庵公遺墟碑銘(并序)」 참조.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현실에 대처하는 감각도 있었으며, 현실적 감각은 出處에 대한 뚜렷한 의식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家學의 성격은 惟一齋 代에 와서 退溪學과 접목하게 된다. 惟一齋의 학문적 성격은 자료의 멸실로 인하여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1573년(선조6)에 退溪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여 廬江書院을 건립하였을 때 54세의 나이로 지역 유림들에 의해서 초대 山長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그가 당시 퇴계학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의 학문에 있어서 퇴계의 영향을 아울러 짐작할 수 있다. 결국, 惟一齋의 학문은 家學과 退溪學의 접목으로 형성되었고, 그것이 葛峯에게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惟一齋가 생도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면에 비중을 두었는지를 보자.

생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교육의 순서를 엄격히 세우되, 구두 때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정밀한 의미를 밝히기를 거듭하였으며, 미사여구를 숭상하지 않고 의리와 이익의 구분을 뚜렷이 하였다. 효제충신에 근본을 두고, 事親·事君의 도리를 알게 하였으며, 그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아 成己·成物의 공을 이루게 하였다.……진도 나가고 암송시키는 틈틈이 생도들을 이끌고 당위에 올라서, 성현들의 학문에 관해 강구하거나 고금의 득실에 관해서 토론함으로써 그 문하의 진로를 개척하였다.⁵⁾

단편적인 진술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는 도학적 의리를 밝히며, 일상적인 실천을 중시하고 실제로 있었던 고금의 득실에 관해 평가함으로써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惟一齋 문하의 학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 경향을 문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계승 전개하였을까? 惟一齋의 문인록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은 180여명에 이르지만, 李光庭(1674-1756)⁶⁾은 이 가운데 대표적인 문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5) 訓誨生徒, 嚴立課程, 不惟句讀之是先, 而反復乎精微之旨, 不惟詞華之是尙, 而剖析乎義利之分. 本之孝悌忠信, 使知事親事君之道, 正其趨向, 俾達成己成物之功.……策進課誦之暇, 引諸生升堂, 講究聖賢之蘊, 討論古今之得失, 以開拓其門路. (『惟一齋先生逸稿』, 卷2, 「行狀」)

6) 자는 天祥이고 호는 訥隱이며 본관은 原州이다. 曾祖 李澤이 光海朝에 과거를 폐하

賁趾 南致利·芝軒 鄭士誠 등 제공은 선생(惟一齋)께서 陶山으로 보내 학업을 마치게 하니 學問으로 이름났다. 玉山 權曄·淸慎齋 朴毅長·梧峯 申之悌·蘆川 權泰一 등 제공은 조정에 立身하여 당시의 명인이 되었다. 北厓 金圻·守靜 琴撥은 操行으로 명망이 무거웠다. 方潭 權杠은 후진을 가르쳤으니, 당시의 명인들이 그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 安東에서 文學이 성한 것은 대개 선생께서 창도한 결과라고 한다.⁷⁾

이에 의하면, 惟一齋 門人들은 크게 學問, 立身, 操行, 後進養成 등의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점은 역으로 惟一齋의 학문 경향 속에 그러한 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면서 葛峯의 학문적 토대가 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葛峯의 학문 형성에는 위에서 언급한 惟一齋로부터 家學을 전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月川 趙穆을 비롯하여 西厓 柳成龍·栢潭 具鳳齡·寒岡 鄭述 문하를 출입하면서 퇴계학의 본령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학문적 진로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惟一齋부터가 퇴계를 동방에 있어서 程朱의 유일한 嫡統으로 생각한 독실한 퇴계의 及門弟子이며⁸⁾, 月川을 비롯하여 西厓·栢潭·寒岡 등 葛峯이 從遊하였던 인물들이 모두 惟一齋와 더불어 퇴계학맥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던 동문들이기 때문이다.

李光庭이 쓴 葛峯의 「행장」에는 “기묘년에 부친께 말씀드리고 동지 몇 사람과

고 남하하여 安東 乃城에 卜居하면서 安東에 살기 시작하였다. 그는 26세 시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후로도 鄉試에는 연이어 합격하였으나 會試에는 실패하였다. 후에 孝廉으로 천거되어 翊衛司 洗馬 등 여러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대부분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특히 文章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원근의 狀誌文字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葛峯의 「행장」 뿐 아니라 惟一齋의 「행장」도 썼으며, 그외에도 申之悌, 金垓 등의 誌碣을 썼던 것던 것으로 미루어 惟一齋와 주변의 사정에 상당히 밝았던 것으로 보인다.

- 7) 如南賁趾致利·鄭芝軒士誠諸公, 先生使之卒業陶山, 以學問著. 如權玉山曄·朴判書毅長·申梧峯之悌·權蘆川泰一諸公立身於朝, 爲時名人. 金北厓圻·琴守靜撥, 以操行重. 權方潭杠, 訓誨後進, 一時名人, 多出其門. 福州文學之盛, 多自先生唱導云. (『惟一齋先生逸稿』, 卷2, 「行狀」)
- 8) 自有東方以來, 文章節義之士, 代不乏人. 間或以道學名世者, 亦非一二, 而表裏精粗, 粹然一出於正光洙泗之嫡統, 紹程朱之宗派者, 惟吾先生一人而已. (『惟一齋先生逸稿』, 卷1, 「上府伯書」)

함께 청량산을 유람하였는데, 月川 趙선생을 拜謁하였다. 선생은 그가 범상치 않은 인재임을 알아보고 함께 유람할 것을 약속하였다. 공이 그 어른을 모시고 절경을 다녔는데, 맑고 고요한 가운데 혹은 시로써 화답하고 혹은 의리를 강설하면서 유유하게 며칠을 보냈다. 공은 알지 못하던 것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뿌듯하게 얻은 바가 있었으며 넉넉하게 귀의하였으니, 그것을 평생의 지극한 행운으로 여겼다.”⁹⁾ 하였고, 金堧이 쓴 「묘갈명」에서는 “또한 西厓·栢潭·寒岡선생의 문하에도 遊門하여 爲學의 방법을 더욱 알게 되었다.”¹⁰⁾ 하였다. 또한 許薰이 쓴 「墓碣後識」에는 “장성하고 나서는 月川·寒岡·栢潭 세 선생에게 遊門하니, 학문은 정밀하고 깊었으며 핵심을 계승하였다.”¹¹⁾ 하였다.

月川·西厓·栢潭·寒岡과 葛峯의 관계는, 당사자들의 문집에서 葛峯과 관련된 언급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과 위에서 葛峯의 「행장」을 쓴 사람과 「묘갈명」 등을 쓴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師承關係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出入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지만 葛峯은 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상당한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月川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앞에서 ‘평생의 지극한 행운으로 여겼다.’고 했는데, 실제로 『葛峯集』에는 맨 첫머리에 나오는 「부용처사를 배알하고(謁芙蓉處士)」부터 「송현에 이르러 是齋를 송별하면서 3行字를 써서 읊음(到送峴送別是齋用三行字)」, 「집에 돌아온 이튿날 창연히 운산을 바라보며(到家翌日悵望雲山)」¹²⁾에 이르기까지 24수의 시는 葛峯이 25세 때 56세의 月川과 함께 淸涼山을 유람

9) 己卯, 稟于先君子, 與同志數人, 爲淸涼之遊, 道謁月川趙先生. 先生知其非常材也, 約與同遊. 公陪侍杖屨於絕境, 淸寂之中, 或和韻, 或講說義理, 從容數日, 公益聞其所不聞, 充然有得, 浩然其歸, 以爲平生至幸焉. (『葛峯先生文集』, 卷4, 「行狀」)

10) 公姿稟超詣, 濡染典訓, 又遊西厓·栢潭·寒岡諸先生門, 益聞爲學之方. (『葛峯先生文集』, 卷4, 「墓碣銘」)

11) 既長, 遊月川·寒岡·栢潭三先生之門, 學問精邃, 的有承授. (『葛峯先生文集』, 卷4, 「墓碣後識」)

12) 月川은 30代 때부터 가까운 芙蓉山에 精舍를 짓고자 희망하였는데 81세가 되어서 결국 芙蓉精舍를 지었다. 따라서 芙蓉處士라는 호칭은 일찍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평소 제자들을 가르치던 月川書堂에 딸린 협실을 是齋라 불렀는데, 대개 나날이 바르게 산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하면서 酬唱한 것들로 葛峯에게 있어 月川이 갖는 적지 않은 의미를 느끼게 한다. 또한 寒岡과 栢潭에 대한 葛峯의 감정도 그가 쓴 祭文에서 나타나고 있다.

寒岡에 대한 제문 : “여유있는 마음과 높은 식견으로 사문(退溪)에 질의하시고……많은 선비들을 이끌고 『심경』을 가르치시니, 어두운 거리에 해와 별이 비치는 듯, 나의 수많은 어리석음 깨우치셨네.”¹³⁾

栢潭에 대한 제문 : “세상의 중사이시니 국사를 맡을 지혜를 갖추었고, 나라의 보배시니 어떻게 공경하지 않으리오……일찍이 門牆에 기대어 태산북두처럼 우러렀고, 얼굴을 맞대고 질의하니 깨우쳐 주신 은혜 두터웠네.”¹⁴⁾

비록 은유적 표현이지만 寒岡과 栢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月川과 西厓에 대한 제문은 없고 오히려 柏巖 金玘(1540-1616)과 晦谷 權春蘭(1539-1617)에 대해 제문을 썼다.¹⁵⁾ 이점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따라서 제문의 유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葛峯의 퇴계학 계승이라는 점에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은 지금까지 거론된 寒岡·栢潭·月川·西厓·柏巖·晦谷 등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3. 葛峯의 交遊關係와 學問形成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이, 연배로 보나 인간관계로 보나 退溪의 급문제자이자 惟一齋의 동문들로서, 葛峯으로서는 交遊라기 보다는 從遊의 대상이 되었던 인

13) 玩心高明, 質業師門……表率多士, 訓解心經, 日星昏衢, 啓我群盲. (『葛峯先生文集』, 卷4, 「祭寒岡鄭先生文」)

14) 世有宗師, 炳事之智, 國有著龜, 如何不淑……夙倚門牆, 景仰山斗, 承顏質疑, 教誨恩厚. (上同, 「祭栢潭具先生文」)

15) 柏巖에 대해서는 “소자는 옛날에 모시고 있었건만 지금은 곡을 하네.” (顧我小子, 昔日侍生, 今來一哭. 「祭柏巖金先生文」) 하였고, 晦谷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가르침을 깊이 받아서 門下에 출입한지 40여년이 되었네.” (深蒙警誨, 而出入門下者, 四十餘載矣. 「祭晦谷先生文」) 라고 하였다.

물들임에 비해, 그야말로 交遊를 통하여 葛峯의 학문 형성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무대는 止水亭이었다. 본래 止水亭은 부친 惟一齋의 산소를 모신 臥龍山의 지세가 山高水急하여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지은 정자였는데, 葛峯이 거기에 머물면서 지역의 文士들과 交遊하는 장소로 삼았던 까닭에 그의 학문 형성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때 止水亭을 출입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北厓 金圻, 溪巖 金垠, 守靜齋 琴撥, 玉山 權暉, 蘆川 權泰一, 琴易堂 裒龍吉, 湖陽 權益昌, 陶軒 柳友潛, 石南 李敬遵이 있었다.¹⁶⁾ 이들 가운데는 알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圻(1547-1603) : 자는 止叔이고 호는 北厓이며 본관은 光山이다. 仲兄 壘와 함께 어려서부터 退溪門下에 배웠으며, 惟一齋의 門人이기도 하다. 退溪가 사망하고 문집이 오래도록 완성되지 않았는데, 공이 山長을 맡아 그 일을 마쳤다. 임진년(1592)에는 從弟인 垠와 더불어 舉義하여 整齊將이 되었고, 후에 功이 기록되어 監察의 증직을 받았다.

金垠(1577-1641) : 자는 子峻이고 호는 溪巖이며 본관은 光山으로 金富倫의 아들이다. 禮安에 살았는데 임진년 西厓 柳成龍이 體察使로 영남에 부임하였을 때 16세 나이로 찾아가 拜謁하였다. 문과에 급제하고 1615년(광해 7)에 승정원 注書가 되었으나 복인 정권을 비판하여 벼슬을 그만두었다. 1618년 인목대비가 폐위된 뒤로는 두문불출하고 독서로 낙을 삼았다. 인조 반정 직후에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도승지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貞이다.

權暉(1562-?) : 자는 叔晦이고 호는 玉山·玉峯이며 본관은 安東이다. 통훈대부 權擁의 아들로 道只村에 살았다. 惟一齋의 문인으로 문과에 합격하고, 공조좌랑, 海美현감, 康津현감, 예조좌랑을 지냈다.

權泰一(1569-1631) : 자는 守之이고 호는 蘆川·藏谷이며, 본관은 安東으로 權春蘭의 아들이다. 惟一齋의 문인이며, 具鳳齡의 문인이기도 하다. 문과

16) 就先君子墓下, 濬沼構亭, 日携同志觴咏其間. 一時同志之士, 如金北厓圻·金溪巖垠·琴守靜撥·權玉山暉·權蘆川泰一·裒琴易龍吉·權湖陽益昌·柳陶軒友潛·李石南敬遵, 及諸名勝優游林下, 以道義往來. (『葛峯先生文集』, 卷4, 「行狀」)

에 급제, 내외직을 거쳐 형조판서를 지냈다. 접반사로 椴島에 갔다가 병에 걸려 돌아오는 길에 定州에서 죽었다. 葛峯의 시 가운데는 특히 權泰一과 酬唱한 것이 많다.

裴龍吉(1556-1609) : 자는 明瑞이고 호는 琴易堂·藏六堂이며, 본관은 興海로 裴三益의 아들이다. 1585년에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1602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舉義하여 대장 金垓의 휘하에서 부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洗馬·侍直·副率을 지냈고, 충청도사에 이르렀다. 金誠一의 문인으로, 柳成龍·趙穆·南致利 등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천문·지리·방법에 조예가 있었고 특히 易理에 밝았다.

그외 琴撥(1573-?)의 자는 子開이고 호는 守靜齋이다. 惟一齋의 문인으로 烏川에 살았다. 柳友潛의 자는 尙之이고 호는 陶軒이다. 葛峯集에 柳友潛과 酬唱한 詩가 있다. 또 李敬遵의 자는 伯憲이고 호는 石南이다. 葛峯集에 李敬遵과 酬唱한 詩가 있다.

이들을 보면 대개 惟一齋의 문인록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인데, 그 구심점은 역시 惟一齋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것이 洛契會라는 모임으로, 이것은 惟一齋에게 배웠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었다. 그들이 惟一齋의 歿後에 스승의 학덕을 기리고자 몇 사람의 발의로 洛契會를 만들었는데, 위에 열거한 인사들이 止水亭에 모여 觴詠하던 사이였다면 이들이 주로 洛契會를 이끌어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葛峯의 交遊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보기 위해서는, 止水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되는 그의 詩를 분석하여 寄贈 혹은 酬唱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葛峯의 詩(挽詩) 가운데 구체적인 寄贈·酬唱의 대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100명이 넘는데¹⁷⁾, 그 가운데 비교적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權守之(泰一), 權時中

17) 葛峯文集 가운데 특히 詩제목에는 名, 字, 號, 官職을 혼용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당시 安東지역의 處士들로서,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들이다. 따라서 字 혹은 名으로 이중 정리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선 葛峯의 詩에서 寄贈·酬唱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姜從事官, 丘景仰, 權景漸,

(得可), 權仁甫(宏), 琴士休, 琴子開(撥), 金景淸, 金子峻(垓), 南子紀(太別), 柳尙之(友潛), 李器成(適), 李伯憲(敬遵), 鄭勉甫(侁), 鄭子弘(士毅)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넓게는 퇴계학과 좁게는 惟一齋 문화의 영향권에 속하면서 당시 安東지역 처사층을 형성하였던 주요 인물들이었으므로 짐작된다.

葛峯이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완성함에 있어서 交遊하던 人物 중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李光庭은 “학문에 있어서는 南致利·權宇, 문예에 있어서는 權泰一·裴龍吉, 실천에 있어서는 金圻·金垓의 도움을 받았다.”¹⁸⁾고 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으로 보여진다. 權泰一·裴龍吉과 金圻·金垓은 다같이 止水亭에 출입하면서 詩와 淸談으로써 葛峯과 교류하였지만, 權泰一은 가장 많은 시를 주고 받았던 사람이다. 金圻는 의병장 金垓와 종반간으로 임진년에 葛峯과 함께 擧義하였던 사람이며, 또 金垓은 비록 葛峯보다 年下이지만 광해군의 폭정에 맞서 벼슬을 버리고 두문불출함으로써 出處에 있어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葛峯은 만년이 되어 조정의 부름을 받기도 하였으나, 出處의 문제에 있어서는 金垓과 뜻을 같이 하였다.¹⁹⁾ 다만 南致利·權宇는

權隣哉, 權茂卿(益昌), 權味道(得說), 權士溫, 權士重, 權守之(泰一), 權叔晦(暉), 權時中(得可), 權信甫, 權汝弼, 權淵谷, 權而弼, 權仁甫(宏), 權子晦, 權周卿, 權仲時(慶生), 權宅甫(寔), 琴士休, 琴彦覺, 琴釋如, 琴子開(撥), 金景淸, 金景涵, 金苟全(中淸), 金明仲, 金士悅, 金士豪, 金汝熙, 金以實, 金以志, 金而志, 金而和, 金子峻(垓), 金子瞻, 金淸陰, 金活源(渫), 金孝一, 南謹甫, 南子紀(太別), 閔順原(煥), 朴景述(仲胤), 朴景中, 朴君晦, 朴垣, 朴景仲(希淨), 裴明瑞(龍吉), 邊君遇, 徐綏之, 徐申之, 薛都司, 成安義, 孫君益, 孫伯善, 孫士俊, 孫采, 辛克初(年契), 申順夫(之悌), 申立夫(之信), 辛子方, 申澤遠, 安君望(夢呂), 安達源, 安灑, 安士洪(景澤), 安護軍(湛), 吳景沈, 吳景泓, 王來徵, 禹士賀, 禹永賴, 柳德哉, 柳馥, 柳尙之(友潛), 李景承, 李季明, 李季孚(應龍), 李君信, 李近甫, 李近夫(迥), 李器成(適), 李德薰, 李伯憲(敬遵), 李汝壽, 李衛甫, 李衛仲, 李宜寧(養源), 李宗培, 李直講, 李太別, 李泰仲(亨男), 張懋德, 張仲順, 鄭敬之(希聖), 鄭勉甫(侁), 鄭汝彦(季俊), 鄭子弘(士毅), 趙景行(遵道), 趙穆, 趙子休, 朱孔儒, 陳天龍, 泰暉師, 洪君受(河量), 黃君協.

18) 公以超詣之資, 早承詩禮之教, 又當斯文諸老無恙之日, 襲薰親炙, 陶成德器, 而朋友之賢, 如賁趾·松巢之切磋問學, 蘆川·琴易之文藝相長, 北厓·溪巖之節行砥礪, 又有非後世所及向, 使公得行其所志其所樹立, 有不可量者。(行狀)

19) 晚節彌礪, ……遂與文貞公金垓結爲同心之契, 惟以節義相勉勵。(葛峯 後孫 金丙文氏 소장 上疏文)

다같이 30代 후반에 요절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葛峯은 어려서부터 두 사람에 대하여 동문선배와 평생의 벗으로서, 그리고 퇴계의 급문제자로서 학문적인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²⁰⁾

4. 葛峯의 思想的 諸樣相

지금까지의 고찰에 의하면, 葛峯의 학문과 사상은 退村과 潭庵의 단계에서 형성된 家學이 惟一齋에 와서 退溪學과 접목하면서 葛峯에게 전수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존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학맥이나 교유관계와 같은 외형적인 정황을 가지고 추론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葛峯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내용에 대해 일정한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葛峯이 남긴 詩·遊錄·記文, 義兵活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후대인들이 葛峯에 대해 평론해 놓은 行狀·墓碣 등 철학적인 저술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속에서 포착되는 葛峯의 학문과 사상에 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詩에 나타난 葛峯의 求道精神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葛峯은 25세가 되던 1579년(기묘년) 9월에 淸涼山을 유람하였다. 주지하듯이 淸涼山은 退溪가 吾家山이라고 불렀던 만큼 退溪學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淸涼山은 빼어난 산세와 경치로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淸涼山을 유람한다는 것은 退溪와의 관련

20) 生少時及見南賁趾·權松巢兩處士, 賁趾同門丈也, 松巢世契友也. 從遊下風, 欽服高義, 固有素矣. 惟我兩君子, 竝生一時, 天資穎悟, 志合道同, 相與講明性理之書, 而就正溪訓, 喫緊旨訣, 立脚堅定, 操守益確, 修業而進德, 日征而月邁, 其學問之精深, 言之篤實, 可謂二而一者矣. (『葛峯先生文集』, 卷4, 「答校中士林書」)

성을 배제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때 葛峯이 방문하였던 곳은 거의 退溪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람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葛峯이 이때 쓴 詩 24수와 「清涼山遊錄」이 문집에 남아 있다. 이 가운데 葛峯의 구도 정신을 느낄 수 있는 詩와 그 외에 몇 수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만사가 지금은 한 자락 꿈만 같은데	萬事如今一夢依
내 평생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此生長恨未摳衣
다만 선생께서 다니시던 곳을 좇아갈 뿐	追惟杖履經行處
초목은 향기 머금고 아직도 빛을 발하네	草木含馨有餘輝

-- 「도산서원에서 느낀 바를 읊음(入陶山有感)」 2수 가운데 둘째 수²¹⁾

葛峯이 청량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陶山書院을 방문하여 지은 시이다. 이 시에는 葛峯은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하여 퇴계학에 대한 계승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함께 동행하였던 月川 趙穆에 의해 더욱 부각된다. 즉 松川에 사는 權味道(得說)의 소개로 芙蓉峯 아래 昭明軒에서 月川을 배알하였는데, 비록 예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금방 마음이 통하였고 함께 유람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葛峯은 "(유람에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없이 기뻐다. 개인적으로는 명승의 고장에 와서 長老를 모신 것은 참으로 이번 산행의 행운이었다."²²⁾ 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우러러 보니 푸른 하늘이요 굽어보니 연못이라	仰看青天俯有淵
천연대 앞에는 솔개가 날고 고기는 뛰노네	鳶魚飛躍一臺前
큰 스승 역책하신 후에 사람들은 끊어졌지만	泰山頽後無人會
새와 고기 뛰노는 모습은 저절로 한가롭네	縱翼揚鱗任自然

-- 「천연대(天淵臺)」²³⁾

陶山書院을 방문한 후 退溪가 즐겨 찾던 도산서원 앞 강가에 있는 天淵臺에

21) 『葛峯先生文集』 乾, 卷1, 詩

22) 敬奉嘉命, 欣躍不已. 私以爲入名勝之區, 而陪丈人之後, 眞此行之幸也. (『葛峯先生文集』 坤, 卷4, 「清涼山遊錄」)

23) 『葛峯先生文集』 乾, 卷1, 詩.

올라 읊은 시이다. 天淵이란 말 자체가 『시경』의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는다.(鳶飛戾天, 魚躍于淵)”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하늘과 땅에서 이치가 밝게 드러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退溪의 학문과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그것은 '理가 顯現하는 鳶飛魚躍의 세계'를 향한 추구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葛峯은 하늘과 물을 굽어보면서 退溪가 꿈꾼 바로 이러한 세계를 그렸던 것이다. 葛峯은 구체적인 성리설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유적지 답사와 詩作을 통하여 退溪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졸렬한 대로 분수에 만족하고	守拙安吾分
한가로이 거하며 홀로 읊조리네	居閑獨自吟
하늘과 땅은 내 작은 집이요	乾坤一草屋
바람과 달은 영원한 내 마음이네	風月百年心

-- 「산 속 정자에 홀로 앉아(山亭獨坐)」²⁴⁾

이 시는 葛峯이 止水亭에서 시를 읊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안분지족하는 處士로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마음 자세를 잘 보여주는 시이다. 따라서 이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葛峯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 이미 문학계에서 상당히 연구되어 있지만, 葛峯은 安東지역의 처사문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安東의 처사문학은 載道論과 天人合一論으로 요약되는 문학관과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²⁵⁾ 이 시가 그러한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葛峯이 松巢 權宇를 평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의 재주가 아름답다고 칭송하지만, 실로 德行이 심신에 갖추어지면 文藝는 다만 그 나머지일 뿐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우리 유가에 있어서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²⁶⁾ 라고 한 말

24) 上同.

25) 이종호, 「문학을 통해 본 안동 선비의 유교적 규범의식과 풍류의식-16,7세기 처사층의 시가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문화학』 (2001년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가을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p. 71.

26) 夫噫世之人, 皆稱松巢才華之美而已, 實未知德行之有得於身心而文藝之特其餘事, 則亦豈非斯文之一慨然者也. (『葛峯先生文集』, 卷4, 「書松巢遺卷後」)

도 이와 통한다. 즉 德行이 본령이고 文藝는 지엽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葛峯이 비록 정치한 성리설의 전개나 치열한 논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退溪 - 惟一齋를 계승한 자신의 철학을 복인정권 하에서 벼슬길이 막힌 17세기 초반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시를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적이 물러갔다는 말이 정말인가	賊退之言是果然
신민의 분노 하늘에 닿을 듯 하네	臣民之憤極通天
主和는 예로부터 임시방편이었을 뿐	要和自古皆姑息
후환을 어찌 알리오 더욱 참혹할는지	後患焉知火益燃
— 「서울 소식을 듣고 분하여 적다(聞西報憤而記之)」 2수 가운데 첫째 수 ²⁷⁾	

이 시는 葛峯이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해에 지은 것이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분강개한 심정을 시로 표현하였는데, 당시 崔鳴吉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던 주화론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임진년의 왜란이 있었을 때 직접 學義에 나섰던 사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葛峯의 의식세계가 止水亭을 중심으로 하는 문예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범주의 憂患의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도학적이면서도 단절된 處士로서의 삶'과 '국가적 문제에 대한 선비로서의 憂患의식'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진 처사문화와 통한다. 葛峯은 퇴계학맥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를 바탕으로, 처사문화가 안동문화로 자리잡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퇴계학의 또다른 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義兵活動에 나타난 葛峯의 實踐精神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葛峯의 처사적 삶의 방식을 단순히 소극적인 현실도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시와 가사에 대해 문자적 표

27) 『葛峯先生文集』 乾, 卷2, 詩.

현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간혹 그를 이상을 좇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
한 이상주의자로 보기 쉽다.²⁸⁾ 이렇게 되면 '매일같이 벗들과 술 마시고 시나
 읊는(日携同志觴詠)' 것이 그의 참모습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葛峯의 행적과 사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각종 국가위기 시에 그가 보여준 실천적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조정에서도 포상
을 하거나 함이 없었으며, 또한 문집에도 몇 편의 憂國詩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擧義에 관해 직접 언급한 글을 남기지 않아서 자세한 내막을 알기도 어려웠다.
이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는 2백여 년이 지난 1824년
(순조24)에 權仁護 등 安東 유림들이 연명으로 올린 상소문이다.

故 徵士 金得研은……선조 임금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義兵을 창기
하였는데, 술선하여 家財를 내어서 義倉을 설치하고 널리 군사를 모았습니
다. 이에 피란가던 사람들이 감동하여 되돌아와 합류하였고, 밥 굶는 사람들
은 배불리 먹고 힘을 보탰습니다. 군율은 엄격하였고 위세를 크게 떨쳤으
며……죽음을 맹세하고 국은에 보답하기를 7년을 하루 같이 하였습니다. 그
당시 山南의 雄邑 大鎭이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安東에는 적이 감
히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문충공 유성룡이 "경상도 6진이 모두 파괴되었고
安東만이 홀로 완전하다."고 한 것은 대개 金得研의 공을 가리키는 것입니
다.²⁹⁾

贈職과 贈諡를 요청하는 이 상소문을 통하여, 우리는 葛峯이 의병활동에 있어
서 상당한 활약을 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임진년(1592)에 그치

28) 예컨대 葛峯의 詩歌 분석을 통해, 그가 이현보-이황-권호문으로 이어지는 보수적
이상주의를 계승하면서도, 17세기의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상주의의 파탄 현
상이 그의 시가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신영명, 「보수적 이상주의
의 계승과 파탄-김득연의 강호시가 연구」, 『(尙志大)論文集』 제18집 (1997. 8)
참조.

29) 故徵士金得研……宜廟龍蛇之亂，倡起義旅，先出家財，設爲義倉，廣致召募。於是乎，
避亂者感義而歸附，饑餓者得飽而賣勇，軍律申嚴，聲勢大振……矢死報國，七載如一
日。其時山南之雄邑大鎭，莫不瓦解，而至於安東，則賊不敢入境，文忠公柳成龍所謂，
慶尙六鎭皆殘破，而安東獨完云者，蓋指金得研之功也。(葛峯 後孫 金丙文氏 소장 上
疏文)

지 않고 정유년(1597)에 왜군이 재침입하여 왔을 때까지 이어졌다. 葛峯이 맡은 일은 주로 義倉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고 군량을 조달하는 한편, 援兵으로 참여한 明나라 종사관들을 접견하는 일이었다. 경리 楊鎬와 도사 薛虎臣은 그의 활약상을 보고 크게 감복하였으며, 종사관 張懋德·陳天寵·朱孔儒는 군량을 인수하기 위해 義倉에 왔다가 葛峯을 알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葛峯은 정성스럽고 진실하니 뛰어난 군자이다.……그가 나아가 접견하는 모습을 보니, 크게 절도에 맞고 삼가 헤아려 행동하거나 말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적절하여 중도를 지키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의 법도는 성인의 문하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우리는 군량을 받고 義倉에 관해 말하다가 그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³⁰⁾

특히 무술년(1598)에 援軍이 永川에 진주하고 있었을 때, 楊鎬는 葛峯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증명하였으며, 張·陳·朱 3종사는 글(序文)을 지어 葛峯의 덕행과 문장과 충의를 칭송하였으며, 나아가 碑文을 지어 그의 행적을 영원히 남기려 하였으나 군사가 이동함으로 인하여 碑는 세우지 못하고 글만이 후손의 수중에 남게 되었다.³¹⁾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나서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고 이듬해 三田渡의 맹세가 있었을 때, 80이 넘는 葛峯은 여전히 비분강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관문에서는 삼 년 동안 피리소리로 세월을 보내고, 변방은 천하의 병사들이 내는 먼지로 뒤덮혔는데, 글 읽는 서생을 무엇에 쓰리오, 늙은 검은 갑 속에서 울고 있네.”³²⁾ 라고 절규하였으나, 몸은 이미 늙어 시로써 울분을 달래다가 그해 9월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처럼 葛峯의 ‘국가적 문제에 대한 선비로서의 憂患의식’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일관되고 있었다. 明나라 종사관들의 말을 들어 본다.

30) 葛峯誠實，勝君子也。……觀其晉接威儀，大節謹度，作止語默，巨細咸宜，無不悉中，其矩非遊聖之門者，不能也。……愚領糧而至義倉，聞其名。（『葛峯先生文集』，卷4，「附眞定營椽史張懋德·陳天寵·朱孔儒贈葛峯序」）

31) 여기서 말하는 序文은 『葛峯先生文集』，卷4에 있는 「附眞定營椽史張懋德·陳天寵·朱孔儒贈葛峯序」이고，碑文은 「駐慶永時又贈葛峯序」를 가리킨다.

32) 關月三年笛，邊塵四海兵，書生何所用，老劍匣中鳴。（『葛峯先生文集』，卷3，「夜坐二首」 가운데 둘째 수）

‘꽃과 열매가 함께 무성하다.’는 말을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 실속없이 화려하기만 한 말로 세상을 현혹하는 따위는 하지 않는다. 다만 위로는 公卿이 있고 다음으로 大夫가 있는데도, 선비는 四民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倡義를 높이 일으키고 나라를 도와 헌신하였으며, 양식을 내어 병사들에게 먹이고 재물을 내어 백성들을 모았으니, 자상하고 화락하며 미더움이 넘쳐서 고을 백성들에게는 크게 권면함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칭호가 그를 따라다녔으며, 어진 백성과 사류들은 “진실하도다. 갈봉의 사여!” 라고 하였다.³³⁾

葛峯은 그들로부터 李白과 杜甫의 文章이란 평을 듣기도 할 정도로, 문예적 자질에 있어서는 당시에 확고한 인정을 받았지만, 위의 인용문은 그가 단순히 문예적 재주에만 몰두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일개 處士에 불과했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사재를 털어 舉義에 참여하는 기개를 보여주었다. ‘꽃과 열매가 함께 무성함(華實并茂)’이란 文章과 操行을 함께 갖추었다는 말이다. 즉 문예적 자질과 용기있는 실천을 함께 중시한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李光庭이 “공은 문장을 짓되 같고 다듬는데 공을 들이지 않았고 뜻가는대로 붓을 달려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³⁴⁾ 한 것은, 이러한 결단력있는 자세가 문학 작품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한말에 극치를 이루었던 拓菴 金道和(1825-1912)를 비롯한 퇴계학맥 속에서 이루어졌던 안동지역의 의병운동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다.

3) 葛峯의 精神的 定着 - 「止水亭記」

葛峯이 「止水亭記」를 지은 것은 壬亂이 끝나고 20년째 되던 해이며 본인 나이 64세가 되던 1618년(광해10)이었다. 이 때는 3,40代의 전쟁 참여와 50代

33) 華實并茂, 不於斯人而誰歸其與. 騁浮華而炫世習者, 不侔也. 第以上而公卿, 次而大夫, 而士居四民之首, 乃有崇厚倡義之舉, 助國不及之費, 出糧以供兵食, 損資以輸民力, 而慈祥愷悌忠盡良存, 可不爲鄉民一大勸也. 而令名與之俱隨矣, 賢民士類曰, 允矣哉. 葛峯義士乎. (『葛峯先生文集』, 卷4, 「附眞定營椽史張懋德·陳天寵·朱孔儒贈葛峯序」)

34) 公爲文章, 未嘗以雕琢爲工, 隨意放筆, 自成一家之則. (行狀)

의 과거 응시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였으며, 나이로 보아도 인생의 정점에 서 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止水亭記」는 葛峯이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정리되고 정착된 나름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글이다. 저술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이미 앞에서 검토한 「산 속 정자에 홀로 앉아(山亭獨坐)」라는 시와 통하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신의 최종적 정신 세계를 서술하고 있다.

오호라, 사군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로 원하는 바는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물러나 산림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산림은 선비가 마땅히 머물며 궁구하고 수양해야 하는 곳이다. 평생 배운 것이 실질을 추구함이니, 산림에서 궁구하고 수양하는 것이 어찌 다만 경치를 즐기기 위함이었는가? 臺와 沼에서 이름을 돌아보고 의미를 생각하여 臨鏡·小心·自卑·向上에서 樂山·樂水와 養性·樂天에까지 이르렀으니, 敬에 그침과 孝에 그침과 信에 그침이 어찌 나의 분수 안에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즉 이 정자는 단지 물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른바 그칠 곳을 알아서 안정됨이 있고 그 그침에 능히 편안함으로써 至善의 경지에 그친다는 것 또한 이로써 이룰 수 있을 것이다.³⁵⁾

이 짧은 인용문에는 葛峯의 인생사, 그에 대한 자신의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점이 함축되어 있다. 그는 단적으로 '止水亭은 단지 물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하였다. 즉 자기 자신이 그칠 곳을 알아서 至善에 그침 즉 '止於至善'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止於至善'이란 물론 『대학』에서 제시하는 儒者의 행동 기준이지만, 葛峯에게 있어서 至善에 그친다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出仕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사군자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은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35) 嗚呼，士君子生斯世也，致君澤民，固所願也，而進不獲其志願，則退宜處於山林。山林者，士之所當止而窮養之地也。平生所學，既以實地爲志，則山林窮養，豈止爲景物役哉。于臺于沼，顧名思義，臨鏡·小心·自卑·向上，以至於樂山·樂水而養性·樂天，則止於敬·止於孝·止於信者，亦豈非吾分內事乎。然則此亭，非止爲止水也。夫所謂知止有定，能安其止，而以止於至善之地者，亦可以此而馴致之也。（『葛峯集』，卷4，「止水亭記」）

舉義에 나서기도 하고 科擧에 응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변적 상황으로 여의치 않을 때에는 물러나 산림에 은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때에도 그저 '경치나 즐기면서 음풍농월이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7,80이 넘어서 지은 憂國詩에서도 여전히 현실에 대한 憂患의식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至善에 그친다 함은,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것과 '경치를 즐기고 음풍농월하는' 것 사이에서 선비가 취해야 할 至善의 경계를 찾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나아가 出과 處의 사이에서 至善의 경계를 찾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그것은 처사로서 산림에 은거하여 자연적인 삶을 누리면서 본성을 기르고 유학의 이념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다.

5. 결론

이상에서 葛峯 金得研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외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가지고 논한 감이 없지 않다. 葛峯이 장성하여 활동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戰時이거나 선조말기에서 광해군 대로서 북인정권의 시대이거나 인조반정 후 서인정권의 시대였다. 그는 일찍부터 處士의 길을 선택하였고, 자신의 생각은 대개 詩로 읊었으며, 국가적 위기 시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葛峯의 학문은 家學과 退溪學이 접목된 아버지 惟一齋의 학맥을 계승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趙穆·柳成龍·具鳳齡·鄭述 등의 문하에도 從遊하는 한편, 權泰一, 權得可, 琴撥, 金垓, 柳友潛, 李敬遵 등 주로 惟一齋의 문인들과 交遊하면서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정립시켰다. 따라서 그의 학문적 성격은 넓게는 퇴계학맥을 계승하였고 좁게는 惟一齋의 학맥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철학을 이론이나 학설의 형식으로 피력하기 보다는 詩와 實踐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개념으로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서 나타난 사상적 특징을 간단히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것을,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明나라 종사관의 표현을 빌어, '華實并茂의 철학'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文章과 操行 혹은 文藝와 實踐을 함께 중시하는 철학이다. 葛峯은 일찍부터 文學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으며 가사와 시조에 있어서 우리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업적을 남겼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영남유림 사회에서 '安東이 무사하였던 것은 金得研의 功'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인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憂患의식을 가진 선비이기도 했다. 필자는 퇴계학파의 학문적 성격을 이론적 천착 일변도로 파악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른 논문을 통해 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거니와³⁶⁾, 퇴계학맥을 정통으로 계승한 葛峯의 舉義는 퇴계학이 갖는 실천적 측면에 대한 또 하나의 실례가 된다고 본다.

그의 '華實并茂의 철학'은 각기 시대와 상황에 따라 표출되었지만, 그의 생애를 통해 보면 止水亭을 지을 60代 중반 무렵에 가서 자신의 철학으로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그 형식은 至善에 그침 즉 '止於至善'이었다. 文藝와 實踐 사이의 至善, 出과 處 사이의 至善,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운택하게 하는 것과 경치를 즐기고 음풍농월하는 것 사이에서 至善을 찾는 것이 그의 학문과 사상의 과제였으며, 處士 金得研의 평생의 과제였던 것이다.

36) 拙稿, 「退溪哲學에 있어서 實踐의 問題」, 『퇴계와 함께, 미래를 향해-퇴계탄신500주년기념 유교문화축제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안동: 세계유교문화축제 추진위원회, 2001. 10) pp. 83~98. 참조.